

재혼가족 발달을 위한 가족 FIRO 모델

The Family FIRO Model for Stepfamily Development

안동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현은민

Dept. of Home Management Andong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 Hyun Eun Min

〈목 차〉

- | | |
|--------------------|-------------------|
| I. 서론 | IV. 가족생활교육·상담의 적용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
| III. 재혼가족의 상호작용 영역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presents the Family FIRO model for stepfamily development.

The Family FIRO model conceptualizes interactional patterns in stepfamily for dealing with developmental tasks and suggests a method for organizing assessment and for prioritizing treatment strategies.

Boundary ambiguity, role confusion, intergenerational coalition, and loyalty conflict, lack of relationship commitment and resource management issues of stepfamily constitute the inclusion interaction dimension in The Family FIRO model. While power, role negotiation, conflict, decision making, and discipline issues represent the control interaction dimension, lack of emotional exchange and open self-disclosure issues are intimacy interaction dimension in the stepfamily.

The Family FIRO model suggests that stepfamily should attend to the developmental tasks related to inclusion before placing a major emphasis on control issues which in turn should come before emphasis on stepfamily intimacy.

I. 서론

최근 인구학적 조사에 따르면 가족 변화의 한 측면으로 이혼과 재혼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1970년 5%에서 1980년 5.8%, 1990년 11%, 1995년 16.8%로 증가하고 있으며(여성백서, 1991) 재혼율은 남성의 경우 1980년 6.4%에서 1990년 8%, 1995년 8.8%로 증가하였고 여성은 동기 간동안 4.1%에서 7%, 7.5%로 증가하였다(여성통계연보, 1996). 90년대 우리나라 혼인 유형은 남녀 초혼을 제외한 재혼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8%로 나타나고 있고 사별로 인한 재혼보다 이혼에 의한 재혼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임춘희, 1994).

이혼의 증가와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이혼과 재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등은 이혼과 재혼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요구하며 재혼에 의한 가족구성을 점차 증가하는 가족형태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재혼은 초혼과는 달리 재혼을 안내해주는 규범이 없기 때문에 불완전한 제도(Cherin, 1978)로 보고 실제 재혼이 초혼보다 이혼율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나고 있다(Cherin, 1978; Furstenberg & Spanier, 1984). 미국의 경우 이혼과 재혼의 증가에 따라 이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에서 재혼가족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단계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재혼가족에 대한 연구는 문제지향적 시각과 규범적·적응적 시각으로 나누어진다. 이 두 시각은 서로 다른 방법론과 가설로 구별된다. 문제지향적 시각은 결손비교가설, 스트레스가설, 사회화가설, 불완전제도가설 등으로 주로 핵가족과 재혼가족의 가족구조 차이에 의한 문제점에 초점을 둔 반면 규범적·적응적 시각은 이혼과 재혼을 비정상적이고 병리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규범적 생활양식의 선택으로 간주하여 가족체계이론, 가족발달이론이나 사회교환모델을 이론적 토대로 하여 재혼가족관계를 묘사하고 이해하는데 초점을 둔다(Coleman & Ganong, 1990).

재혼가족은 정적체계가 아니고 다른 가족형태와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변화해가는 역동적 체계이며

초혼에 비해 복잡한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재혼가족이 건전한 가정을 이룰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위하여 재혼 및 재혼가족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문제점을 파악하고 재혼가족의 역동적 전환과정을 발달적 측면에서 연구함이 필요하다. 특히 이혼으로부터 성공적 재혼의 전환과정에서 가족원의 새로운 경계정립과 새로운 역할의 적응을 포함한 발달적 과정은 충분히 탐색 되어야 할 주제이다.

본 연구는 이혼에 의한 재혼가족의 발달을 가족 FIRO(Fundamental Interpersonal Relations Orientation) 모델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소개하는 가족 FIRO 모델은 발달이론으로서 다른 발달이론들과 달리 특별히 연령에 따른 발달단계에 구속되지 않을뿐 아니라 가족의 주된 변화와 재정립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재혼가족의 획기적 변화, 전환, 그리고 재정립 과정을 설명하는데 적합하다. 가족 FIRO 모델은 재혼과 같은 획기적인 가족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두 가지 가정을 제시 하고있다. 첫째, 가족이 가족생활주기의 전환단계이거나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가족은 새로운 상호작용 패턴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가족이 중요한 변화에 직면했을 경우 포용, 통제, 친밀감의 우선순위로 상호작용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다.

재혼과 같은 가족의 획기적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여러 이론들 중에서 가족 FIRO 모델이 가진 장점은 다른 이론에 비해 초혼가족과는 다른 재혼가족의 발달적 과정에서 직면하는 가족의 상호작용 즉 포용, 통제, 친밀감의 세 영역 모두를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예를 들어 가족발달이론과 가족 스트레스이론은 역할 패턴과 가족구조를 강조한다. 가족발달이론은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구조적 변화와 역할변화를 강조하고 각 주기에 따른 가족발달과업을 제시하여 발달과업의 성취가 다음 단계의 가족의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나 발달과업의 우선 순위나 연속적인 결과에 대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가족 FIRO 모델은 가족이 구조적 변화를 겪을 때 가족이 적응해야 할 상호작용 영역에 초점을 두어 가족발달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발달과업의 우선순위와 순차적 결과를 제시한다. 전환기에 가

족발달 과정상의 의미의 공유나 결합의 중요성을 명시하고 더 나아가 통제와 친밀감에 관련된 발달과업을 제안하고있다. 가족 FIRO 모델에 의하면 포용, 통제, 친밀감은 가족생활주기에 걸친 가족의 상호작용 영역이며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가족은 주요 기능을 성취한다(Doherty, Colangelo & Hovander, 1991)고 볼수있다.

가족 스트레스이론은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사건에 의해 야기되는 가족의 역할변화와 구조적 변화를 설명하고 가족 발달이론에서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은 인식이나 의미영역의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가족 FIRO 모델은 주된 스트레스 요인에 가족이 적응하기 위해 통제와 친밀감영역의 발달적 순서를 부가적으로 제안한다(Doherty, Colangelo & Hovander, 1991).

또한 여러 가족치료 이론들도 가족문제를 치료하는데 있어서 포용, 통제, 친밀감의 어느 한 영역은 강조하나 가족 FIRO 모델처럼 세 영역 모두 포함하지는 않는다. 구조적 가족치료이론은 가장 명백하게 포용영역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전략적 가족치료이론과 행동주의적 가족치료 이론은 통제영역을 강조하고 가족체계이론과 경험주의적 가족치료이론은 친밀감영역을 강조한다(Doherty & Colangelo, 1984).

위에서 비교한 바와 같이 가족 FIRO 모델은 다른 이론들이 설명하지 못하는 가족상호작용 영역을 폭넓게 설명할수 있으므로 재혼가족과 같이 복잡한 문제와 더불어 발달과정을 거쳐야 하는 가족의 문제를 평가하고 치료, 교육하는데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족 FIRO 모델의 두가지 가정을 기초로 재혼가족의 발달에의 적용성 및 유용성을 검토하고 나아가서 재혼가족의 교육 및 상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론틀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족 FIRO 모델

가족 FIRO 모델은 Schutz의 Fundamental Interper-

sonal Relations Orientation (FIRO) 이론에서 유래되었다. Schutz는 1958년 "FIRO-대인행동의 세 영역 이론"이란 책에서 FIRO 이론을 소개하였으며 포용(inclusion), 통제(control), 애정(affection)을 대인관계의 가장 중요한 세 요소로 제시하였다. Schutz는 이 대인관계 요소를 집단에 적용하였으며 이 세 요소는 대인관계의 발달적과정에서 포용, 통제, 애정 순으로 순차적 단계를 거치면서 발달한다고 하였다. 즉 집단이 형성되려면 개인이 집단에 들어가고, 집단에 소속되고, 구성원으로서 경계와 역할이 정해지는 포용영역이 정립이 되어야 하고 구성원의 상호작용과정에서 집단의 결정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협상하기도 하는 통제영역을 거쳐 구성원이 집단에서의 역할이나 집단의 통제에 대체로 만족하게되면 구성원간에 감정적 개방이나 교환이 이루어지면서 대인관계가 발달된다.

Doherty와 Colangelo(1984)는 집단의 대인관계 행동을 설명한 Schutz의 이론을 가족내의 대인관계에 확대적용 하였고 이를 가족 FIRO 모델로 명명하였다. 가족 FIRO 모델에서 기본 개념적 영역은 가족구성원들 간에 일어나는 가족상호작용이다. 이 모델에서 가족상호작용의 세 영역은 포용, 통제, 친밀감이며 Doherty와 Colangelo는 Schutz의 애정(affection) 대신에 친밀감(intimacy)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가족 FIRO 모델에서 가족상호작용의 첫 번째 영역인 포용(inclusion)은 가족의 하위체계의 정의와 구성원자격, 조직, 가족의 역할부여, 그리고 유대와 관련된 상호작용을 의미하며 세가지 하위범주-구조, 결합, 의미의 공유를 포함한다. 구조(structure)는 가족간의 반복적 상호작용 패턴이 일상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구성원 자격과 역할부여, 세대간 경계를 포함한 가족조직을 나타낸다. 결합(connectedness)은 가족구성원간의 유대적 상호작용을 가리키며 헌신, 양육, 소속을 나타낸다. 의미의 공유(shared meaning)는 가족집단으로서의 정체감과 관련된 상호작용을 의미하며 가족의례와 가치체계를 포함한다. 즉 가족 포용은 누가 가족의 하위체계내에 혹은 밖에 존재하는지 가족구성원을 정의하고 가족이 어떻게 역할을 부여하는지 그리고 가족간에 어떻게 유대를 맺고 있는

지와 사회와 관련된 가족집단으로서의 존재를 나타낸다.

가족 상호작용의 두 번째 영역인 통제는 책임, 훈육, 세력, 의사결정, 역할조정 개념을 포함하며 (Doherty & Colangelo, 1984) 가족내에 갈등이 생겼을 때 곁으로 드러나거나 감추어져 있거나간에 투쟁을 통한 세력행사와 관련된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가족의 상호작용은 끊임없는 영향력행사를 내포하므로 통제적 상호작용은 지배적 통제(unilateral influence attempts), 대응적 통제(counteracting influence attempts), 그리고 협조적 통제(shared influence attempts)의 세 유형에 의해 이루어진다. 협조적 통제는 일반적으로 세력을 행사하거나 세력행사를 대응적으로 손상시키기 보다는 서로 조화를 이루는 통제적 상호작용을 말한다.

가족 FIRO 모델에서 통제적 상호작용은 가족의 욕구가 경쟁적으로 인식될때와 은밀하거나 공공연한 영향력 행사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일어나고 가족구성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에 따라 지배적, 대응적 또는 협조적 방향으로 서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한 가족원이 지배적인 반면 다른 가족원은 대응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Doherty, Colangelo와 Hovander(1991)에 의하면 부모의 훈육행동은 지배적 성향이 많고 부모의 훈육에 대한 자녀의 저항 즉 대응적 반응은 두 세대간의 관계에서 자연스런 반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일면이 있기때문에 지배적 통제와 대응적 통제 자체가 가족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부모 자녀관계에 있어서 통제행동의 융통성있는 조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통제영역의 하위개념인 세력에 관하여 Szinovacz (1987)는 세력구조(power structure)와 세력상호작용(power interaction)의 두 개념간에 구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가족 FIRO 모델에서 세력구조는 포용영역에 속하지만 세력상호작용은 통제영역에 속한다. 예를들어 가족의 위계질서는 포용영역의 구조 측면으로 묘사되지만 위계질서를 흔들려는 시도는 가족의 통제적 상호작용으로 본다. 따라서 부부의 역할패턴은 포용영역인 반면 역할기대의 차이에 대한 부

부의 협상은 통제적 과정으로 본다.

포용영역과 통제영역을 구분하는것은 통제적 상호작용 과정 이전에 발달적으로 우선적인 가족의 구조적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 즉 모호하거나 비효율적인 가족구조에서 가족원에 대한 통제는 어렵기 때문이다.

가족 상호작용의 세 번째 영역인 친밀감은 개방적 자아노출이나 긴밀한 개인적 나눈과 같은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Schutz(1958)는 원래 애정(affec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Doherty와 Colangelo(1984)는 가족은 Schutz가 연구한 일반집단과 다르기 때문에 애정은 가족에 가장 기초적인 유대와 양육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보고 포용영역으로 간주하여 가족구성원의 관계진전으로 특징되어지는 개방적 자아노출과 진실한 감정교환을 보다 잘 나타내는 친밀감(intimacy)이라는 용어로 바꾸었다.

가족 FIRO 모델에서 포용영역의 하위범주인 결합과 친밀감은 혼동되기가 쉬우나 이 두 개념은 두 가지 면에서 구분이 된다. 두 개념은 크게 보면 가까움을 의미하지만 가족기능을 위한 가족원의 유대감(결합)은 가족생활에서 때때로 느끼는 심리적 개방성(친밀감)과는 다르고 또한 결합과 친밀감은 발달순위가 다르다는 것이다. Doherty, Colangelo와 Hovander(1991)는 친밀감은 통제문제가 성공적으로 해결된 후에야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되어 감정적으로 친밀해질 수 있다고 하였다.

가족 FIRO 모델에서 친밀감은 사적감정, 희망, 약점을 나누는 깊은 차원의 가족상호작용을 의미한다. Wynne(1984)도 친밀감의 요소로 개인적 감정, 희망, 경험의 공유를 꼽았으며 Schutz는 개방성과 친밀감은 높은 수준의 개별화가 이루어졌을때 가능하다고 하였다. Doherty와 Colangelo(1984)는 친밀감을 정이나 애착, 성관계와 혼동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가족원이 서로 접촉하고 대화하고 돌보는것과 서로 마음을 터놓고 진실로 감정을 교환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Doherty와 Colangelo(1984)는 가족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세 영역은 항상 존재하지만 가족생활주기와 상황에 따라 강조되는 영역은 달라진다고 하였

〈표 1〉 가족 FIRO 개념

범 주	하위범주 및 설명용어		
포용 :	구조	결합	의미의 공유
유대와 조직에	경계	양육	정체성
관련된 상호작용	역할조직	포함	충성심
	동맹	헌신	의례
	구성원자격	소속	가치
	위치	가입	세계관
통제 :	지배적	대응적	협조적
갈등상황에서	대결	저항	협상
세력행사에 관련된	강압	반항	타협
상호작용	조종	복종	조화
	지시	배척	주고받기
	훈육	불순종	
친밀감 :	상호교감		
개방적 자아노출과	유일한 인격체로서의 관계		
긴밀한 개인적 나눔	정서적으로 친밀한 성적 상호작용		
에 관련된 상호작용	약점의 공유		

다. 예를 들어 이혼에 대한 결정에는 통제와 친밀감 요소가 있지만 가족 FIRO 모델에 의하면 가장 두드러진 요소는 포용영역이다. 가족은 자녀출산이나 실직, 이혼, 가족원의 질병, 사망등의 변화를 경험할 때 포용과 통제 그리고 친밀감의 상호작용영역을 순환하게된다. 가족발달의 순환적 이미지는 가족 FIRO 모델의 세 영역이 영구히 개별적으로 다루어지기보다 재순환 한다는 측면을 암시한다. 즉 가족형성 단계나 재결합 단계에서는 포용영역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며 이를 시작으로 통제, 친밀감 영역으로 상호작용 하게된다.

Doherty 와 Colangelo(1984)는 가족내 상호작용 영역에서 한가지 이상의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담자나 교육자는 세 상호작용 영역 즉 포용, 통제, 친밀감의 순차적 순서를 따르는 처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2. 재혼가족의 개념 및 특성

재혼가족에 대한 용어나 개념정의는 다양하다.

Ganong과 Coleman(1994)은 재혼가족을 나타내는 여러 용어중 대표적으로 재혼가족과 계부모가족을 혼용하여 사용한다고 하였고 Crosbie-Burnett(1989)는 재혼가족이란 최소한 한쪽의 배우자가 과거에 결혼한 경험이 있고 한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족을 말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재혼가족은 부부한쪽이나 양쪽에서 전혼자녀가 한명이상 있는 즉 계부모가족을 의미한다.

재혼가족의 특성은 가족 FIRO 모델의 적용성과 유용성을 시사해 준다고 볼 수 있다. 공통적으로 꼽는 첫 번째 특성으로 재혼가족관계가 복잡하고 경계가 명확하지 못하다는(Peek et al.,1988; Ganong & Coleman, 1994) 점은 가족 FIRO 모델에 의하면 포용영역의 대표적 문제이다. 둘째 부모 자녀간의 유대가 배우자간의 유대보다 더 오래되었으며 개인, 부부, 가족의 생활주기가 일치되지않고 계부모가족은 많은 상실과 변화후에 시작되고 아이들과 성인은 이전 가족에서의 기대를 가지고 재혼가족을 이룬다는(Ganong & Coleman, 1994) 특성도 가족 FIRO 모델의 포용영역으로서 부모 자녀간의 경계와 역할, 정체성과 의미의 공유 같은 개념으로 설명할수있다. 셋째 초혼가족과 달리 재혼가족에 대한 사회적 규범이 미비하여 가족원의 융통성과 조정능력이 더 요구되는 반면 더 많은 갈등을 낳는다는(Peek et al., 1988) 특성은 가족 FIRO 모델의 통제영역에 속하며 정서적으로 친밀하지않다는 특성은(Ganong & Coleman, 1994) 가족 FIRO 모델의 친밀감영역으로 분류하여 재혼가족에서 친밀감이 발달하기전의 우선적인 포용영역과 통제영역을 살펴봄으로서 설명할 수 있다.

3.재혼가족의 발달

재혼은 가족구조, 역할변화, 그리고 친족관계의 지위변화를 동반하는, 즉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게하는 역동적인 가족 재조직 과정이다. 여러 연구에서 재혼가족의 발달과정은 초혼가족의 발달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McGoldrick & Carter, 1988; Mills, 1984; Papernow, 1984).

재혼가족의 발달을 연구한 Mills(1984)는 계부모가

족과 친부모가족의 차이를 무시함으로써 야기되는 역기능적 상호작용의 순환적 성격을 고려하여 계부모와 자녀관계의 적합한 발달에 초점을 두는 단계적 모델을 제안하였고 재혼가족의 장기목표를 결정하는 단계, 자녀에 대한 친부모의 한계설정 단계, 계부모와 의붓자녀간의 유대관계를 맺는 단계, 재혼가족의 규칙과 의례를 발달시키는 단계로 구분하였다.

Whiteside(1982)는 재혼가족의 발달과정을 초혼, 별거, 이혼, 편부모기, 재혼초기 그리고 재혼정립단계의 6단계로 설명하였고 Papernow(1993)는 체계이론과 Gestalt이론을 적용하여 7단계의 발달이론을 제시하였다. 7단계는 새로 형성된 가족에 대해 환상을 가지는 환상단계, 거부감과 소외감으로 고통받는 계부모와 충성심 갈등을 겪는 자녀 모두 환상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동화단계, 문제를 이해하기 시작하고 자신감이 생기는 인식단계, 재혼가족간의 인식의 차이로 인해 갈등과 혼란을 겪는 변동단계, 이러한 차이를 해결하기위해 새로운 규칙, 의례, 경계를 설정하는 행동단계, 재혼가족간에 친밀감과 신뢰감이 발달하고 진정한 감정이 교환되는 접촉단계, 그리고 견고한 재혼가족구조속에 가족전체가 발달해가는 융합단계를 거치게된다.

가족 FIRO 모델에 의한 재혼가족의 발달과정은 가족구성원에 대해 경계를 설정하여 역할을 부여하고 재혼가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재정의하는 포용영역의 단계를 거쳐 계부모와 자녀간의 훈육문제와 자원분배를 둘러싼 가족간의 세력투쟁과 갈등을 협조적으로 조정하여 가족규칙을 정하는 통제영역의 발달단계를 거친후에야 재혼가족간에 진실한 감정교환과 진정한 친밀감을 형성하는 친밀감 영역의 발달이 이루어져 건강한 가족관계로 발달해갈 수 있다. 따라서 가족 FIRO 모델은 Mills의 단계적 모델이나 Papernow의 모델보다 재혼가족의 발달순서를 세 상호작용 영역으로 체계화하여 보다 간단명료하게 제시하여준다.

Ⅲ. 재혼가족의 상호작용 영역

가족 FIRO 모델은 재혼가족의 발달이 포용, 통제,

그리고 친밀감의 가족상호작용 영역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므로 재혼가족이 발달과정에서 직면하는 많은 문제와 성취해야 할 과업들을 재혼가족의 세 상호작용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복잡한 문제를 체계화하여 발달과업의 우선순위와 순차적 결과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1. 재혼가족의 포용영역

재혼가족은 초혼가족과는 매우 다른 구조와 내력으로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재혼가족의 발달은 초혼가족에서는 병리적인 구조로 볼 수 있는 취약한 부부 하위체제와 친부모 자녀간의 강한 동맹 그리고 외부인으로부터의 가족기능의 잠재적 방해 가능성을 가진 구조로 시작된다(Papernow, 1984).

가족 FIRO 모델에 의하면 재혼가족과 같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족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포용영역이 가장 우선시된다. 재혼에 따른 가족구조 변화에 대한 모호함과 불일치, 충족되지 못한 기대, 가족의 정체성과 역할 혼란등은 포용영역의 대표적 문제이다. 먼저 가족의 구성원 자적, 경계, 헌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다른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포용영역의 문제들이 해결될때까지 재혼가족은 다음 발달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고착된다. 포용영역의 구조를 나타내는 경계와 역할은 재혼가족의 적응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두 관련구성요소이다. 재혼가족에 대한 연구들은 재혼의 경우 가족경계 문제가 초혼보다 더 모호하다고 하며(Walker & Messinger, 1979; Robinson, 1980) 경계모호성이 커질수록 가족의 스트레스와 역기능이 커진다고 밝히고 있다. 재혼가족에서 경계의 모호성이 높은 이유는 경계침투성과 가족 재정의의 필요에 의해 나타난 결과이다. 즉 초혼가족에서 가족구성원은 생물학적으로, 법적으로 정의되고 명확한 경계를 갖고 있지만 재혼가족에서는 접촉빈도와 의지에 의해 경계가 주관적으로 정의된다.

재혼가족은 경계설정 과정에서 다른 구성원을 포용하거나 혹은 배제하기도 한다. 배우자들은 상대방의 전 배우자를 포함한 경계영역을 넓혀야 하며 자

녀들은 계부모와 의붓형제를 가족구성원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관계에 대한 불명료함이 스트레스와 가족의 역기능을 초래하고(Boss, 1980) 경계의 불명확함은 계부모와 자녀간에 그리고 부부간에 유대를 방해함으로써 가족의 응집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Berman, 1985; Lutz, 1983; White, Brinkerhoff & Booth, 1985) 의미의 공유를 감소시킨다.

Boss(1987)에 의하면 가족경계는 신체적 측면과 심리적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고 가족구성원이 신체적으로 부재이나 심리적으로 존재할때(예:이혼, 수감, 미아) 반대로 신체적으로 존재하나 심리적으로 부재일 때(예:장기질병) 경계의 모호성이 나타난다. 특히 재혼가족에서 친부모의 부재와 계부모의 존재는 경계의 혼란을 낳게된다. 가족경계에 대한 개인과 가족의 인식은 가족체계내에서 뿐만아니라 체계와 외부와의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재혼가족에서 가족간의 경계설정은 가장 중요한 과제중 하나이며 심리적으로 건강한 가족과 건강하지 못한 가족을 구분짓는 가장 큰 특징이다(Lewis et al., 1976).

따라서 새로 형성된 재혼가족은 두 배우자가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부 하위체계와 계부모와 자녀간의 만족스런 관계와 그리고 자녀가 비양육 친부모와 계속 접촉하고 성장해 나갈수 있는 경계설정을 반드시 해야한다. 경계설정은 재혼한 배우자가 전 배우자에 대한 해결되지 못한 갈등이나 감정을 여전히 가지고 있거나 자녀가 부부유대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등의 여러 이유로 인해 곤란에 부딪칠수 있으나 경계설정을 못하게 되면 세대간의 동맹, 삼각관계, 지나치게 밀착되거나 유리된 역기능적 경계의 특징을 가진 가족체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Haley, 1980).

포용영역의 하위개념인 결합과 의미의 공유 문제는 재혼가족의 정체성 혼란, 충성심 갈등, 그리고 관계에 대한 헌신의 결여로 나타난다. 이전가족에 대한 충성심은 새로 형성된 가족에 대한 헌신의 발달에 방해가 된다. 재혼부부의 경우 자녀와 이전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부부관계를 강화해야 하는 반면 자녀는 비양육부모와 관계를 유지하면서 계부모와 관계를 형성해야하는 문제를 갖

는다. 이 혼란은 이전가족과 현재가족간의 적절한 상호작용 패턴에 대한 규범의 부재 때문에 발생하고 행동과 감정의 경계를 제시하는 지침이 없기 때문이다(Pasley & Ihinger-Tallman, 1982).

또한 충성심의 문제는 재혼가족에서 방해자는 자녀가 아닌 계부모라는 사실에도 원인이 있다. 즉 초혼가족에서는 부부관계가 형성된후 자녀가 태어나고 부모는 자녀의 출생에 적응해야 하지만 재혼가족에서는 새로운 부부관계가 형성되기 전에 부모자녀관계가 존재하고 이 유대는 편부모기에 더 강화되는 경향이 있어 자녀는 새로운 계부모에 의해 친부모와 자신과의 유대가 위협받는 것으로 인식할수 있다. Visher & Visher(1979)는 자녀들의 친부모에 대한 충성심은 매우 강해서 친부모가족에서 자녀들은 부모의 결혼을 지킬려고 하지만 재혼가족에서는 한쪽부모에게 강한 충성심을 느끼고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새로운 부부를 갈라지게 하려고 애쓰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따라서 재혼가족의 초기단계에 계부모를 배제하는 친부모와 자녀간에 동맹이 형성될 가능성이 많고 이는 가족내 위계질서의 부조화를 의미하며 재혼가족의 성공적 적응에 장애가 된다.

일반적으로 가족의 기능은 부부관계에 달려있고 부부관계는 다른 모든 가족관계의 근본이 되는 관계이므로 개입의 주된 초점이 되어왔으나 재혼가족에서는 계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부부관계보다 재혼가족의 행복도에 더 크게 영향을 주는것으로 나타나고있다. Crosbie-Burnett(1984)의 연구에서 부부관계의 질 보다 계부모와 자녀간의 상호만족한 관계가 재혼가족의 행복에 더 큰 지표로 나타났다. Messenger와 Walker(1981)도 재혼에 거부적인 자녀문제가 세 번째로 꼽히는 스트레스원 이며 계부모와 의붓자녀간의 갈등이 결혼만족도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밝혔고 Booth(1985)의 연구에서도 자녀가 있는 재혼은 자녀가 없는 재혼보다 이혼의 위험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Furstenburg와 Spanier(1984) 그리고 White와 Booth(1985)에 의하면 재혼가족에서 정체성의 재정의는 새로운 가족단위의 형성과 가족 적응과 통합의 한 부분이므로 불가피하다. 재혼가족은 가족 구성원이 의

식적 무의식적으로 이전 가족과 동일시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어려움을 겪게된다. 초혼과는 달리 재혼에서는 상대적으로 짧은시간내에 역할재정의 과정을 경험하게되고 초혼에서보다 더 많은 역할을 맡아야 하므로 정체성 재정의 과정은 더욱 어렵게 된다.

재혼가족의 형성과 발달과정에서 자원관리문제는 야기되는 또 다른 문제중 하나이다. 재혼가족구조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가족의 시간, 금전, 애정, 그리고 에너지 등의 자원분배가 요구되고 특히 시간과 경제적자원의 관리는 재혼한 부부와 그들의 전 배우자간에 갈등의 주요원인이 된다.

가족 FIRO 모델은 재혼가족의 자원관리에 관한 문제에 가족구성원의 정서적 상호작용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한다. 재혼가족에서 자원관리 문제는 가족이 어떻게 구성원과 경계를 정의하느냐 즉 포용영역에 달려있다. 예를들어 재혼가족에서 부모가 의붓자녀보다 친자녀를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더 큰 양육책임을 느낄 때나 반대로 계부모가 같이 살지않는 비양육 자녀보다 같이 살고있는 양육자녀에게 더 의무감을 느낄 때 의붓자녀와 비양육자녀에 대한 자원분배는 달라질 수 밖에없고 이에 따라 포용영역에 대한 이해의 부족은 가족자원에 대한 갈등을 낳게된다.

또한 재혼가족의 경계가 비허용적이고 경직되어 있을수록 자원교환은 적고 가족갈등은 커진다. 반대로 재혼가족의 경계가 허용적일수록 자원교환은 많아지고 의미의 공유가 커진다. 가족 FIRO 모델은 재혼가족에서 부부의 가치관과 세계관의 의미의 공유가 클수록 자원관리의 일치감이 커진다고 본다.

재혼가족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이 포용영역에 속하며 따라서 가족원의 경계설정과 역할부여, 재혼가족으로서의 정체성 재정의와 의미의 공유같은 포용영역의 발달과업의 성취가 가장 우선시된다.

2. 재혼가족의 통제영역

재혼가족의 통제문제는 계부모의 훈육문제, 자원

분배와 관리를 둘러싼 세력투쟁으로 빈번하게 나타나기 쉽다. 재혼가족의 목표중 한가지는 가족전체의 적응을 위해 세력과 역할의 조정에 있다.

가족 FIRO 모델은 재혼가족은 자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전에 포용영역의 발달적과제에 먼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한다. 즉 계부모는 자녀로부터 훈육 통제력을 행사할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고 인정받기 전에 자녀에 대한 뚜렷한 역할과 자녀와 자연스런 결합이 먼저 되어 있어야 한다. 자녀로부터 인정받지못한 계부모가 포용영역을 해결하지않고 통제영역으로 옮길 경우 때로 심한 통제행위를 강화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이것은 많은 경우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이끌고 포용문제와 친밀감문제를 고착시키게 된다.

재혼가족에서 역할은 융통성에 대한 요구와 갈등의 잠재적 요인으로써 가장 많이 언급되는 개념이다. 재혼가족에 관한 연구에서 계부의 역할은 연구의 초점이 되어왔다. 연구들의 일반적인 결론은 계부의 근본문제 중 한 가지는 부모로서의 권위의 부족에 있다고 본다(Duberman, 1975; Goldstein, 1974).

재혼전 편모의 가족구조에서 어머니가 훈육자 역할을 담당하고 어머니와 자녀간에 경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 계부는 자녀를 훈육하는 훈육자로서 기대되는 전통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어려워서 소극적이거나, 방임적이거나 혹은 거꾸로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구속적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계부가 의붓자녀의 행동을 친아버지처럼 통제하려고 할때 친모는 자녀의 행동변화가 필요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재혼한 배우자와의 관계를 위해 침묵하게 되면 계부와 의붓자녀간에 갈등이 깊어진다. 어머니에 대한 충성심과 계부에 대한 반감으로 자녀는 계부의 요구에 계속적으로 반항하게 되고 이것은 계부가 자녀를 강압적으로 통제하려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친모가 계부의 훈육을 비난하게 된다. 이 악순환이 어떻게 시작되었든 계속되면 계부는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다는 감정과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친모는 재혼한 남편과 자녀 사이에 끼여 이리저리 저리지도 못하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Mills, 1984). 가족 FIRO 모델은 이 예를 친모와 계부가 어떻게 그들의

기대와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합의없이 즉 포용영역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자녀의 대응적 통제 행위에 초점을 둔 경우라고 설명한다.

Kosinski(1983)는 계모의 경우 특히 자신의 자녀가 없는 계모일수록 새로운 가족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를 갖는 경향이 있고 사악한 계모의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 슈퍼엄마가 되기를 노력한다. 그러나 의붓자녀가 계모의 역할을 거부할때 좌절감과 갈등이 커진다고 하였다. 여러 연구에서(Berman, 1980; McGoldrick & Carter, 1980; Mills, 1984) 계부모의 역할적응은 자녀의 연령만큼 시간이 걸린다고 하였다.

Lutz(1983)는 재혼가족의 십대 자녀들에게 있어서 계부모의 훈육이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중 하나라고 지적하였으며 Stern(1978)은 계부모는 청소년 의붓자녀에게 훈육자 역할을 하기전에 서서히 우호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Crosbie-Burnett(1984)도 계부모와 자녀간에 상호적절한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자녀가 계부모와의 관계를 인정한다면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그의 훈육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였다.

초혼가족에서 부부는 가족규칙을 자녀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천천히 적용할 여유를 가지지만 재혼가족에서 규칙은 가족의 형성과 더불어 정해져야 하고 재혼부부 양쪽 다 전배우자와의 자녀들이 같이 살게 될 경우 가족규칙에 대한 잠재적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재혼가족에서는 규칙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도 세력투쟁이 나타나기 쉬우므로(Berman, 1980) 재혼가족은 가족규칙에 대한 의사결정을 반드시 수행해야 하며 가족규칙은 역할정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을 정할 때 자녀들을 참여시켜 협조를 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Dodson, 1977). 재혼가족은 초혼가족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적응성이 요구되며 안정되고 기능적인 재혼가족이 되기위해 계부모는 갈등과 세력투쟁의 잠재요인이 되는 규칙에 대한 의사결정과 역할조정 그리고 훈육에 대해 민감하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재혼가족에서 늘어나는 새로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은 가족의 갈등과 세력투쟁의 또 다른 원인이 된다. 재혼한 배우자 입장에서는 전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양육비가 과다하거나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 자녀입장에서는 의붓형제가 그들보다 더 물질적 지원을 받는다고 인식할 때 또한 개인영역에 대한 침해 특히 소유물과 공간을 나누어야 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요구는 재혼가족간에 공공연하거나 또는 미묘하게 갈등을 증폭시켜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행위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친부모와 계부모간에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 배우자와 함께 하는 시간, 집안일과 직업에 배분하는 시간에 대해 서로 다른 기대를 할때 또한 가족구조가 복잡하고 역할이 많아질수록 역할의 우선순위와 정체감 재정의 등에서 갈등이 커지고 해결되지 못한 갈등은 거리감과 감정적 위축으로 나타난다. 이와같이 재혼가족에서 시간, 금전, 그리고 관심과 같은 자원에 대한 갈등은 친부모나 계부모의 세력에 대한 도전의 바탕이 된다.

가족 FIRO 모델은 지배적, 대응적 통제는 대부분의 경우 가족의 정서적 교환을 제한시켜 가족의 친밀감을 약화시킨다고 보고 재혼가족이 지배적 통제나 상대방의 세력행사를 대응적으로 손상시키기보다 협조적으로 균형을 이룬다면 갈등을 완화시킬수 있다고 제안한다.

재혼가족의 통제영역에서의 발달과업은 자녀의 훈육과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에 따르는 갈등과 세력투쟁을 협조적으로 조정하는것에 초점을 둔다.

3. 재혼가족의 친밀감 영역

재혼가족에서 친밀감 형성은 시간이 걸리는 과제이다. Gilbert(1976)는 친밀감은 두 사람간에 언어적 비언어적 깊은 상호교환이며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관계에 대한 깊은 헌신을 말하며 시간에 걸쳐 일어나는 과정으로써 엄밀한 의미에서 완전히 성취되거나 완성될 수는 없다고 하였다.

가족 FIRO 모델에 의하면 높은 수준의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재혼부부의 경우 가족의 역

할조직이나 경계설정을 포함한 상호바람직한 포용영역의 상호작용 패턴을 발달시켜야하고 신뢰감을 손상시킬 수 있는 지배적, 대응적 통제나 투쟁을 바꾸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부가 서로 다른 욕구나 기대를 건설적으로 협조적 통제와 조절을 한다면 친밀감의 질적향상을 경험할 수 있다.

자아개방을 통한 의미의 공유는 긍정적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고 상호교감을 가능하게 하여 친밀감 발달에 기여한다. 일반적으로 재혼가족의 후기 발달단계에서 계부모자녀간에 친밀감과 진실한 감정(authenticity)의 교환이 가능하게 된다(Papernow, 1993). 부부간에도 의붓자녀문제로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감정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밀감을 더 환층 느끼게 되고 재혼가족관계는 이제 종종 만족감을 줄뿐아니라 상호결속과 신뢰감을 느끼게 되어 관계유지에 더 이상 계속적인 관심이 요구되지않는 편한 사이가 된다. 이 단계에서 모든 가족구성원이 함께 발달해간다. 경험하는 가장 만족스런 계부모 역할은 친부모와도 나누기 어려운 성이나 마약, 친구관계 같은 문제에 대해 털어놓을만큼 친밀한 존재로서 굳게 인식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재혼가족의 친밀감영역에서의 발달과업은 협조적 통제 상호작용을 통하여 가족원간에 자아개방을 촉진시키고 진실한 감정교환으로 친밀감을 발달시키는 것이다.

IV. 가족생활교육 · 상담에의 적용

재혼가족을 안내할 사회적 규범이 부족한 현실에서 재혼이 또 다시 재이혼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는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부담을 의미하므로 가족생활교육자나 상담자의 재혼가족의 발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개입이 요망된다. 앞으로 가족 FIRO 모델에 기초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재혼가족의 복합적인 문제를 간단히 체계화해서 문제에 대한 평가가 조직적으로 쉬워지고 발달과정에 따른 과업의 우선순위가 인식되어 재혼가족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가족 FIRO 모델에 의하면 재혼가족의 성공적 적응과 행복은 주된 변화가 요구되는 가족재정립기에 포용, 통제 그

리고 친밀감의 순차적 상호작용 과정을 통하여 성취할 수 있다.

재혼가족의 문제는 가족으로서의 정체성 부족과 헌신의 결여, 역할 혼란, 세대간 동맹, 자녀훈육과 자원배분을 둘러싼 세력과 갈등, 자아개방 및 감정교류의 부족 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

가족생활교육자와 상담자는 재혼가족이 가족발달 단계에 따른 가족변화의 우선순위를 인식하도록하여 바람직한 가족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우선 재혼가족에서 나타난 문제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목표를 세워서 포용, 통제, 친밀감의 영역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혼가족의 복합적 문제가 가족 FIRO 영역에 광범위하게 나타났을 때 한번에 여러 영역의 문제를 다루기보다 가족 FIRO 모델이 제시한대로 문제의 발달적 순위를 인식하여 이론적으로 우선적인 영역의 교육 및 치료목표를 먼저 설정하여야 한다.

가족상담자는 가족 FIRO 모델의 포용영역의 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되면 순차적으로 통제영역의 치료를 시작하기전에 통제영역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재혼가족이 예를 들어 친밀감 같은 이론적으로 뒷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더라도 포용이나 통제의 앞 영역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때는 뒷 영역의 문제에 초점을 두는 것을 피하고 가족 FIRO 모델이 제시한대로 포용영역부터 순차적으로 가족이 상호작용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재혼가족에서 가족 상담자는 가족 구성원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포용영역의 상호작용을 수립 하도록 가족이 다른구성원과의 관계에 대해 가지고있는 기대나 요구를 명료화 하도록 도와주는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재혼가족에서 자녀가 문제증상을 나타낼 때 가족 상담자는 어느 부모가 양육 책임이 있는지 또는 자녀가 한쪽 부모와 동맹을 맺어 부모의 재혼에 부적절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등의 포용영역의 문제를 분명히 밝혀내는것이 필요하다.

재혼부부가 친밀감 영역의 문제를 나타낼 때 상담자는 부부간에 드러나지 않는 세력투쟁과 갈등이 있는지 혹은 그들 관계가 헌신의 결여같은 포용문제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 헌신의 결여는 배우자가 친자녀와의 관계에 더 관심을 가지거나 역할과 자원분배 등에서 배우자가 타협하기를 꺼리거나 불평등하다고 인식할때 나타날 수 있으나 이러한 관계의 기초를 위협하는 상호작용 과정이 개선되면 재혼부부의 친밀감은 회복될수있다.

마지막으로 치료진척이 잘 되지 않을 때 해결되지 못한 이전의 문제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재혼가족에서 갈등이 높고 해결되지 않는 것을 가족 FIRO 모델은 새로운 역할에 대한 불명료함과 불일치, 결합에 대한 충족되지 못한 욕구,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정체성 부족, 친부모와 계부모 사이에서 분리된 충성심의 문제 즉 포용영역에서 유래된다고 본다. 그러나 재혼한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훈육의 부족이나 배우자의 비협조를 주된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다(Doherty, Colangelo & Hovander, 1991). 가족 FIRO 모델에 의하면 재혼가족이 통제나 세력투쟁을 핵심문제로 인식하게되면 가족은 구조적, 결합적, 의미의 공유 상호작용패턴을 잃어버려 갈등을 심화시키기 쉽다. 따라서 가족 FIRO 모델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통제를 강화 하기전에 포용영역의 발달과업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한다. 의미있는 가족의 변화는 가족 FIRO 모델이 제안한 순차적 순위를 따른후에 나타난다(Doherty & Colangelo, 1984).

결론적으로 가족생활교육자와 상담자는 재혼가족의 발달을 위해 가족의 정서적 상호작용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재혼가족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포용영역의 상호작용 패턴을 인식하도록 도와주고 조정과 타협 그리고 조화를 이루는 협조적 통제 상호작용을 통하여 상호 감정교환을하여 친밀감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역할을 하여야 한다.

V. 결 론

본 연구는 재혼가족의 발달과정을 가족 FIRO 모델에 적용하여 가족 FIRO 모델의 두 가지 가정을 기초로 재혼가족의 문제와 발달과업을 가족상호작용 세 영역별로 분석하여 가족 FIRO 모델의 적용성 및

유용성을 살펴보았다.

첫 번째 가정에 의하면 가족이 재혼과 같은 큰 변화를 경험할 때 가족의 경계, 역할패턴, 정체성과 같은 포용영역의 재조직이 요구된다. 가족의 일상적인 상호작용 패턴에서 새로운 상호작용 패턴으로의 변화는 갈등을 낳기 쉽고 특히 가족의 요구가 충족되지 못하다고 인식될 때 세력투쟁을 수반하게되어 이 같은 갈등은 어떤 형태로든 가족 친밀감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때문에 재혼가족은 새로운 상호작용 패턴을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 가정은 재혼가족이 새로운 상호작용 패턴을 만들어야할 때 그들의 복잡한 문제를 포용, 통제, 친밀감의 우선순위로 상호작용 한다면 성공적인 적응을 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재혼과 같은 주된 가족변화에 따르는 심각한 갈등은 일반적으로 가족의 역할적용 실패로부터 파생되고 친밀감의 약화는 가족 재조직의 결손과 가족 갈등과 비효율적인 통제와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재혼가족에서는 포용영역의 과제해결이 최우선이다. 왜냐하면 포용영역의 해결은 통제와 친밀감 영역의 성공적 적응을 위하여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재혼가족의 복잡한 문제중 가족경계와 역할에 대한 모호함과 헌신의 결여, 세대간 동맹, 충성심 갈등, 자원에 대한 결정 등은 포용영역의 대표적인 문제들이고 자녀에 대한 훈육, 책임, 의사결정, 세력행사, 역할조정을 중심으로한 갈등은 통제영역의 문제이다. 그리고 상호교감과 자아개방은 친밀감의 문제로 분류된다.

가족 FIRO 모델은 재혼가족의 발달적 과정에서 직면하는 복합적 문제에 대한 통찰력과 가족 상호작용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여 가족생활 교육자나 가족 상담자의 프로그램 개발과 치료목표에 도움을 준다. 더 나아가 가족 FIRO 모델은 다른 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재혼가족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유대와 의미의 공유 측면을 강조하고 통제와 친밀감에 관련된 발달과업을 포함한 폭넓은 시각을 제시하므로 재혼가족의 발달을 위한 이론틀로서 유용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조옥라(1996). 재혼, 그 또 다른 시작. 재혼, 그 또 다른 시작.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40주년 심포지움 자료집.
- 여성백서(1991). 한국여성개발원.
- 여성통계연보(1996). 한국여성개발원.
- 임춘희(1994). 재혼가족연구의 시작과 연구성과에 관한 문헌고찰. *대한가정학회지* 32(2), 93-108.
- 임춘희(1996). 재혼가족내 계모의 스트레스와 적응에 관한 질적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hrons, C.(1980). Divorce : A crisis of family transition and change. *Family Relations* 29, 533-540.
- Berman, C.(1980). Making it as a stepparent. New York:Doubleday.
- Boss, P.(1980). Normative family stress : Family boundary changes cross the life-span. *Family Relations* 29, 445-450.
- Boss, P.(1987). Family stress. In M.B.Sussman and S. K. Steinmetz(Eds.).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695-724. New York : Plenum.
- Bowerman, C. E. & Irish, D. P.(1962). Some relations of stepchildren to their parents. *Marriage and Family Living* 24, 113-121.
- Cherlin, A.(1978). Remarriage as an incomplete institu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4, 634-650
- Coleman, M. & Ganong, L. H.(1990). Remarriage and stepfamily reserch in the 1980's : Increased interest in an old family form,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925-940.
- Crosbie-Burnett, M.(1984). The centrality of step relationship : A challenge to family theory and practice. *Family Relations* 23, 459-463.
- Crosbie-Burnett, M.(1989). Application of family stress theory to remarriage: A model for assessing and helping stepfamilies. *Family Relations* 38, 323-331.
- Dodson, F.(1977). Weaving together two families into one. *Family Health* 9, 44-47.
- Doherty, W. J., Colangelo, N.(1984) The Family FIRO model : A modest proposal for organizing family treatment.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0(1), 19-29.
- Doherty, W. J., Colangelo, N. , & Hovander, D.(1991) Priority setting in family change and clinical practice : The Family FIRO model. *Family Process* 30, 227-240.
- Duberman, L.(1975). The reconstituted family: A study of remarried couples and their children. Chicago: Nelson-Hall.
- Einstein, E.(1982). Stepfamily lives. New York : MacMillan.
- Furstenberg, F. F. & Spanier, G.B.(1984). Recycling the family. Beverly Hills, CA : Sage Publications.
- Glick, P. C.(1989). Remarried families, stepfamilies, and stepchildren : A brief demographic profile, *Family Relations* 38, 24-27.
- Kosinski, F(1983). Improving relationships in stepfamilies. *Elementary school Guidance and Counseling* 17, 200-207.
- Lutz, P.(1983). The stepfamily : An adolescent perspective. *Family Relations* 32, 367-375.
- Lewis, J. M., Beavers, W. R. , Gossett, J. P. , & Phillips, V. A.(1976). No single thread : Psychological health in family systems. New York : Brunner /Mazel.
- McGoldrick, M. & Carter, B.(1988). Forming a remarried family. In B. Carter and M. McGoldrick(Eds). *The changing family life cycle*. New York : Gardner press.
- Messinger, C. & Walker, K. N.(1981). From marriage breakdown to remarriage : Parental tasks and therapeutic guideline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1, 429-438.

- Mills, D. M.(1984). A model for stepfamily development Family Relations 33, 365-372.
- Papernow, P. L.(1984). The stepfamily cycle : An experiential model of stepfamily development, Family Relations 33, 355-363.
- Papernow, P.L.(1993). Becoming a stepfamily: Patterns of development in remarried families. New York: Gardner.
- Pasley, K. & Ihinger-Tallman, M.(1982). Stress in remarried families. Family Perspective 16(4), 181-190.
- Robinson, M.(1980). Stepfamilies : A reconstituted family system. Journal of Family Therapy 2, 45-69.
- Schutz, W. C.(1958). FIRO : A three dimensional theory of interpersonal behavior. New York : Holt, Rinehart & Winston.
- Spanier, G. B. & Furstenberg, F. F(1987). Remarriage and reconstituted families, In M. B. Sussman and S. D. Steinmetz(Ed.).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 Stern, P. N.(1978). Stepfather families : Intergration around child discipline. Issues in Mental Health Nursing 1, 50-56.
- Szinovacz, M. E.(1987). Family power. In M. B. Sussman & S. K. Steinmetz(Eds.).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New York : Plenum press.
- Visher, E. B. & Visher, J. S.(1979). Stepfamilies. New York : Brunner / Mazel.
- Visher, E. B. & Visher, J. S.(1982). Stepfamilies and stepparenting. In F. Walsh (Ed.). Normal family processes. New York: Guilford Press.
- Visher, E. B. & Visher, J. S.(1990). Dynamics of successful stepfamilies.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14(1), 3-12.
- Walker, K. N. & Messinger, L.(1979). Remarriage after divorce : Dissolution and reconstruction of family boundaries : Family Process 18, 185-192.
- White, L. K. & Booth, A.(1985). The quality and stability of remarriages: The role of stepchildre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0, 689-698.
- Whiteside, M. F(1982). Remarriage : A family developmental proces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59-68.
- Wynne, L. C.(1984). The epigenesis of relational systems : A model for understanding family development. Family Process 23, 297-318.